

'26. 6. 19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유럽

- 英, 길거리서 안면부 무차별 흉기 테러...북 아일랜드 반이민 시위 '활활'
 - 6.13 언론은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지역에서 검은 복면과 두건을 쓴 남성들이 이민자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·차량에 방화와 무차별 테러 공격을 할 정도로 반 이민시위가 악화되고 있다 보도
- 英, '돈 받고 英총리 집 방화' 20대 2명 유죄판결...러 배후 의심
 - 6.16 언론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연관된 주택 및 차량 방화 용의자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며,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 사주 정황과 러시아 연계 의혹이 제시됐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용의자들이 암호화폐 3000파운드(약 607만원)를 약속받고 범행했으며, 범행 지시자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부언

미주

- 美,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드론 비행 '무관용' 원칙 적용
 - 6.10 언론은 미국 당국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 경기장 반경 3마일 이내 드론 비행에 '무관용 원칙'을 적용해 최대 10만 달러 벌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고, FBI도 경기장 인근 모든 드론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※ 언론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'드론 군집(swarm) 공격'을 지목하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- 美, 나이지리아군과 합동하여 테러범 200명 이상 사살
 - 6.12 외신은 美 아프리카 사령부와 나이지리아군이 나이지리아 북동부

에서 합동작전을 통해 20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며, 同지역은 보코하람과 ISWAP가 10년 넘게 테러를 일으키는 지역이라고 보도

※ 이번 작전으로 해당지역의 테러 네트워크가 크게 약화되었으며, 특히 감시 및 정찰 능력 면에서 양국 간의 정보 기반 협력이 향상되었다고 부언

아 · 테

○ 파키스탄, 무장단체 검문소 습격해 보안요원 6명 살해, 8명 납치

- 6.10. 언론은 파키스탄 카이버파ختunkwa 페샤와르에서 분리주의 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조직원들이 총기, 박격포탄, 수류탄을 들고 보안 검문소를 습격해 보안요원 6명을 살해하고 8명을 납치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파키스탄이 무장단체 활동을 묵인하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비판해 왔고, 아프간은 이를 부인하면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~3월 무력 충돌이 있었다 부언

○ 韓, 정부청사·국회 ‘사이버테러’ 피해도 보험사가 보장

- 6.13 언론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보사들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‘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’을 개정하여 정부청사·국회·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‘사이버 테러’ 피해도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도

※ 그동안 국가 기관의 사이버 리스크는 손해액 추정이 어렵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서 보장 받기가 어려웠었다 부언

○ 韓-EU, 승객 자료 상호공유..., 마약·테러 대응 강화

- 6.15 언론은 한국과 유럽연합(EU)이 아시아 최초로 승객예약자료(PNR) 입수 협정체결로, 마약·테러 등 초국가 범죄 위험인물을 사전에 선별하고, 국경단계 위험관리와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보도

※ 또한,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마약·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

○ 韓, 원전 불법 드론 막는다...월성에 레이더 첫 도입

- 6.16 언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 불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최초 도입했으며, 해당 장비가 추가 성능 시험과 운용인력 교육을 거쳐 6월 말부터 운용될 예정이라고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美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

- '16.6.12 美 플로리다주 올랜도 소재 게이 나이트클럽 '펄스'에서 총기난사 및 인질극이 발생해 49명이 사망하고 53명 부상



- 테러범은 아프간계 미국인 「오마르 마틴」*으로 새벽 2시경 최초 총격을 시작으로 클럽을 지키던 보안요원과 교전 후 클럽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3시간가량 경찰과 대치

* 아프간계 이민자 2세로 '86년 뉴욕 출생, 범행 당시 직업은 사설 경비요원으로 전과기록은 없었으나 ISIS 동조자로 의심받아 FBI에서 감시대상으로 지정

- 경찰은 오전 5시경 특수기동대(SWAT)를 투입, 폭발물과 장갑차로 클럽 벽을 뚫고 진입한 후 총격전 끝에 테러범을 사살

- 테러 이후 ISIS는 홍보 매체를 통해 “美 칼리프 전사 1명이 기독교인과 게이 무리를 공격했다”라고 배후를 자처했지만

- FBI는 同 사건을 해외 테러 조직의 영향을 받아 급진화된 ‘외로운 늑대’형의 자생적 극단주의 테러로 발표

테러 상식

< ISIS 호라산* 지부(ISIS-K)>

* ‘호라산’(Khorasan)은 이란어로 ‘해 뜨는 곳’을 뜻하며 과거 아프간·이란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지칭, 현재 이란 북동부에 호라산주가 존재

- (결성) '15.1월 ISIS 연계 이슬람 테러단체로 결성, 美 정보당국은 파키스탄(70%)·우즈베크(6%)·체첸(4%)·아프간(4%미만)·아랍(3%)·중국(1%) 출신자로 구성 분석
- (핵심인물) 「사나울라 가파리」를 수장으로 아프간 파슈툰족 중심으로 지휘부 구성
- (연계세력) ISIS, IMU, 파키스탄 Jundallah
- (활동지역) 아프간-파키스탄 접경 산악지역(주로 아프간 동부 남가하르주 주변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군·경 및 주요시설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전 전개